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3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6장 14-18절

설교제목 :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레위기 6:8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 움큼, 가득 움켜쥐어 그 일부를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유향이 비싸서 대개 가난한 자들은 소제의 두 번째 방법을 취했습니다. 즉 곡식을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부친 것’, ‘술에서 튀긴 것’(삶은 것)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의 일부를 가져다가 태웁니다. 따라서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고운 곡식 가루 한 움큼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레6:15) 그리고 남은 소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이 됩니다.(레6:16) 지난 주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물의 나머지를 양식삼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원합니다. 마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본문에서 ‘오늘’이란 헬라어가 ‘세메이온’입니다. 뜻은 ‘그날’, ‘그때’입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오늘’이란 하루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메이온’은 이 땅의 삶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달라는 것은 굶주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굶주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린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눅6:21) 이 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는지 신명기 8장 2-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우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신8:2) 인간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경험하고 겸손해집니다. 더불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실력이 검증됩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더불어 광야의 삶은 낮춤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주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신8:3)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림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림의 시간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이 주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림은 결코 먹는 떡으로 해결되지 않은 주림입니다. 그 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주림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압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내가 주림을 가진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 주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주린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암8:11) 결국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린 존재임을 깨닫고 참된 양식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주림은 절대로 떡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주림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이 굶주림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제

사장의 소제의 나머지 것으로 양식삼을 때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레6:16, 레6:17) 이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동원하여 굶주림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양식삼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공, 번성, 물질 등으로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자동차로, 집의 평수로, 명문대학으로, 명품으로, 인기를 얻는 것으로, 쾌락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추구를 성경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율법, 행위,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풀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풀리지만 단지 헛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참된 양식인양 선전합니다. 이데올로기, 교육, 문학, 예술, 철학 등으로 맛있게 포장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통해 배부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배부른 존재라고 속고 삽니다. 이것은 헛배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누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계2:9)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모나 교회를 부요한 교회라고 합니다. 실상은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서모나 교회를 부요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양식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것을 입증해 보면, 일용할 양식은 아람어로 번역하면 ‘내일의 떡’입니다. 내일의 떡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내일의 떡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출16:4-5)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여섯째 날에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준비라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의 양식입니다. 안식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일용할’이란 ‘에피우시온’인데, ‘에피’, ‘~위에’와 ‘아르톤’, ‘양식’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뜻은 위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요6:48-51) 예수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만을 나의 양식삼겠다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양식삼습니까? 말씀을 양식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양식삼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 즉 말씀을 양식삼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즉 말씀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살려고 하면 주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양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신8:2-3)
- 2)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수 즉 말씀을 양식삼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말씀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말씀만을 양식삼고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